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9. 21(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경찰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근 및 행정관리 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되어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다른 헌법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임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규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법조업,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후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명한 유통·수입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선진화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

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 수산물의 생산·유통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뉴 스페이스 가속화로 통신·지구관측용 소형위성 등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인재 육성과 금융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과기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목요일부터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차역·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도로·철도·항공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지속할 것이며, 응급진료 체계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건강한 추석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 주시기 바랍니다.